

“시가 다 아니야”... 빨라진 지문인식, 탄탄한 내구성 장점 ↑

꼼꼼 IT 리뷰

갤럭시S24

디스플레이 자연스러운 색감 눈에 부담 줄이고 화면 또렷 차세대 지문인식 센서 탑재 닿기만 하면 대기없이 열려 무게중심 넓은 면적으로 분산 AOD·AI 작동 효과음 등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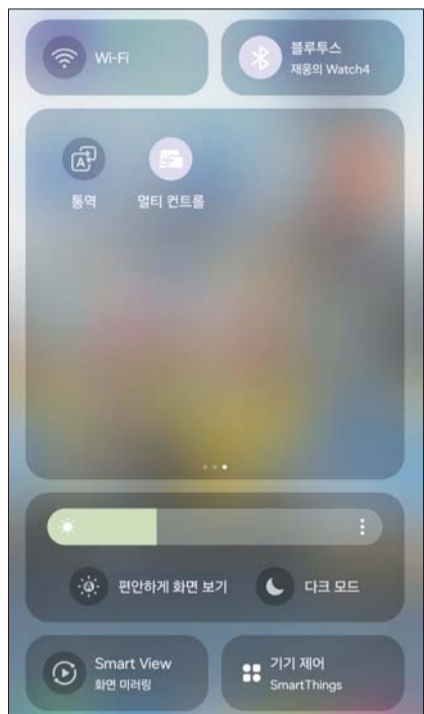
“갤럭시 언팩 행사를 1시간에 맞추기 위해 많은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이후 갤럭시AI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렇게 답변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 다시 보기를 기준으로, 이번 갤럭시 언팩 2024 영상 길이는 1시간 13분 16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만 상영했던 2021년 1월 언팩(1시간 17분 23초) 수준으로 길다. 갤럭시AI가 그만큼 혁신적인 변화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또다른 장점을 모두 자랑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시리즈가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시장 기대치는 3500만대 전후, 역대 갤럭시S시리즈 중 최고 수준임은 물론 약화일로로 겪던 스마트폰 시장도 모처럼 반등을 성공했다.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AI, 갤럭시AI가 가장 큰 성공 요소로 꼽히지만, 실제 사용해본 갤럭시S24 울트라라는 평범한 바형 스마트폰으로 생각해도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디스플레이가 한눈에 알아볼만한 변화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다이내믹 아



동역 기능을 상단바에 배치해 손쉽게 작동할 수 있게 했다.

몰레드 2X 터치 디스플레이지만, 색감을 더 자연스럽게 설정했다. 호불호가 갈린 탓에 결국 화사한 색감을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단행했지만, 구형 모델을 사용하던 입장에서 눈에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또렷해 인상적이었다.

지문 인식도 특별하다. 손가락을 대면 바로 열린다. 차세대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했기 때문.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인식 부위에 손가락을 대면 대기 화면 없이 바로 켜지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내구성이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휴대전화를 함하게 다루는 편이라 구입하자마자 떨어뜨리는 실수를 겪었다가 몇번을 안도했다. 모서리로 떨어지면 충격이 클 법도 한데, 무게 중심을 세심하게 설계했는지 넓은 면적으로 떨어지는 경향도 발견했다. 코닝 고릴라 아머 글래스 역시 굵힘에 아주 강력했다.

10배줌이 없어졌다고 아쉬울 필요도

없었다. 프로비주얼 엔진으로 광각 수준 화질을 낼 수도 있지만, 새삼 5배줌 카메라를 훨씬 자주 쓴다는 것을 알게됐다. 종전에는 10배줌에서 줄여서 사용하던 배율, 5배줌을 쓰다보니 막상 일상에서는 10배줌 사용 빈도가 많지 않았다.

연출 효과도 진일보했다. 이미 입소문을 탄 AOD는 물론, AI를 작동할 때 화면 효과도 마음에 들었다. 마법처럼 무언가 피어나오는 모습, 웹 브라우저를 번역하거나 갤러리를 편집할 때 재생된다.

갤럭시AI 기능이야 당연히 장점,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특히 활용성이 좋았다. 이제 영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자녀를 위해 긴급하게 상담바를 내려 동역 기능을 실행하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 뛰어노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 ‘인스턴트 슬로모’로 보고 있으면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삼성 키보드를 통해 작동하는 번역 기능은 외국어로 메일을 쓰거나 채팅을 할 때 아무 부담 없이 쓸 수 있었다.

기존 AI 기능도 대폭 개선됐다. 삼성 갤럭시 앱에서 검색을 할 때 특이하게 느껴지는데, 장소나 배경 모습은 물론 텍스트까지 읽어서 검색어에 따라 사진을 빠르게 찾아준다.

물론 아직은 개선할 점도 눈에 띈다. 다른 앱과는 달리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번역하려면 별도 조작이 필요하고, 노트 어시스트를 자유롭게 쓰기도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평면 디스플레이도 양날의 검, S펜을 쓰기는 훨씬 편해졌지만 그림감이 예전만 못하고 무게감도 더 느껴졌다. 옛지 패널을 즐겨 쓰던 사용자들은 쓰기 불편해졌다는 아쉬움도 내비쳤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HD한국조선해양, 14척 2.7조 규모 수주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새 오세아니아, 유럽 소재 선사와 LNG운반선 4척, 자동차운반선(PCTC)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중형LPG운반선 2척, 석유화학 제품운반선(PC) 4척 등 총 1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2조 7218억원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4일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17만4000입방미터(m³)급 LNG운반선 4척을 수주하며 이번 수주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계약 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2억7000달러로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8년 1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26일에는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LN

G 이종연료 추진엔진이 탑재된 7500UNIT(1UNIT: 자동차 1대)급 자동차운반선(PCTC: Pure Car and Truck Carrier) 2척을 수주했다. 총 계약 금액은 3563억원으로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8년 5월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HD한국조선해양은 27일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총 3439억 원 규모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6년 12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수주 행진은 3월에 들어서도 이어졌다. HD한국조선해양은 1일 유럽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각각 4만 5000입방미터(m³)급 중형LPG운반선 2척과 11만 5000톤급 석유화학 제품운반선(PC) 4척을 수주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세계 최초 냉장고 IoT보안 ‘최고’ 등급

AI비전 인사이트 등 인공지능 결합

삼성전자 냉장고가 높은 보안성을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가전 업계 최초로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에 UL솔루션즈 주관 사물인터넷 보안 평가 최고등급 ‘다이아몬드’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비스포크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는 AI 비전 인사이트 등 다양한 AI와 IoT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AI 스크린’ 시대에서 스마트홈 허브 역할도 맡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검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성능을 확인받았다고 평가했다. ▲악성 소프트웨어 변조 탐지 ▲불법 접근 시도

방지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는 물론 ▲항상 신뢰 가능한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제공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취약점 테스트 ▲보안 취약점 조기 탐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과했다.

AI 비전 인사이트는 식재료 입출고 순간을 자동으로 촬영해 푸드리스트를 만들고 ‘삼성 푸드’ 서비스로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해준다. 우측 도어에 32형 풀HD 터치스크린을 장착하고 ‘탭뷰’ 기능을 제공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총 4개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 모델에 대해 이번 UL 솔루션즈 검증을 받았다. /김재용 기자

SK케미칼-효성첨단소재-한국타이어

재활용 페트로 만든 타이어 ‘아이온’ 상용화

지속가능 원료 비중 45% 포함 “친환경 원료 적용 더 확대할 것”

첨단 소재 대표 기업 3사가 깨끗한 타이어를 상용화했다.

SK케미칼과 효성첨단소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순환재활용 페트’ 섬유 타이어 코드’를 적용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고 5일 밝혔다.

타이어코드는 타이어 형태를 유지하고 하중을 견디는 섬유 재질 보강재다. 내구성과 주행성 및 승차감에 직결되는 기술, 종전까지는 콘셉트나 시제품에만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왔다.

이 제품은 화학적 재활용 페트를 기반으로 만든 타이어코드를 타이어 완제품 상용화로 이어간 국내 첫 사례다. 전기차가 배터리로 무거운 만큼, 가벼운 무게와 내구성도 충족했다.

3사는 2년여간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에 성공했다. SK케미칼이 순환재활용 페트 ‘스카이펫 CR’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효성첨단소재가 재활용 폴



SK케미칼-효성첨단소재-한국타이어가 상용화한 지속가능 타이어.

리에스터 원사 타이어코드를 개발해 한국타이어 아이온에 적용했다. 이 제품은 지속가능 원료 비중을 45%로 충족, 친환경 기준이 강화하는 유럽에서 엄격한 신뢰성 검증을 거쳐 사용 승인 후 신차용 타이어로 장착할 예정이다.

3사는 이번 개발이 화학업체와 소재 기업, 타이어 제조사가 ‘지속 가능성’으로 의기 투합한 성과라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본희 한국타이어 연구개발혁신총

괄 부사장은 “한국타이어는 2050년까지 모든 타이어에 지속가능 원료를 100%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을 중심으로 친환경 원료 적용을 확대해 글로벌 타이어 업계의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정 효성첨단소재 타이어보강재 PU 상무는 “최근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의 지속가능소재 적용을 늘리고 있고, 타이어회사들 또한 ISCC PLU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국내외 고객들과 협업을 통해 친환경 제품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SK케미칼 사업개발본부장은 “이번 공동개발은 온실가스 감축과 소재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재 생산자와, 중간재 제조사,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협업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DMI, 수소 모빌리티 제품 라인업 공개

‘2024 드론쇼코리아’ 참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하 DMI)이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DMI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드론쇼코리아’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DMI는 전시 공간을 모빌리티와 수소 존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제품과 시제품(프로토타입),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시할 제품 중에는 처음 공개되는 수소 수직이착륙기(VTOL) 시제품도 포함돼 있다. 현재 개발 중인 VTOL은 비행시간 2시간 이상에 기체 크기 2m 내외, 중량 25kg 미만 등 군에서 운용하는 대대급 무인정찰기 기준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회사는 설명



‘2024 드론쇼코리아’에 참가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부스 랜더링 이미지.

했다.

DMI는 전시회에서 VTOL뿐만 아니라 수소 드론인 DS30W, DT30X, 육공분리체 시제품 등도 선보인다. DS30W는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장착할 수 있는 드론 기체로, 기존 제품 대비 내풍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체형 수소 드론인 DT30X는 높은 비행 효율에다 방수, 방진 등에서 내구성을 갖췄다. /양성운 기자 ysw@